

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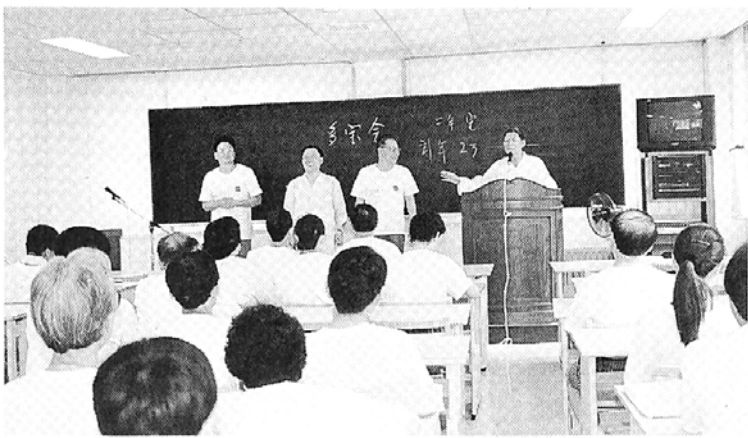
대학생 포교 새지평 열자

불교에 몰입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우려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즉 대학생 불자들 가운데 불교신앙을 위한 단체활동을 하는 학생수가 줄고 있다는 소리다. 지난 3월 대불문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96학년도 신입생만 하더라도 총남권 일대 대학별로 보면 열명당 한 명이 안 되는 숫자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안락의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밖의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현대 문명의 즉물성이다. 현실적 추구의 노골성과 이기적 욕망의 공경이라는 현대산업사회가 원리가 불교에는 치명적 코드로 기능하고 있다.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 이기가 아닌 자비, 욕망이 아닌 절제를 원리로 하고 있는 가르침이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그렇지만 사태는 오히려 거꾸로다. 구원과 초월의 종교적 열망은 인간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무시하고 억압할수록 그에 대한 실존적 정서본능적 반발은 더욱 심해진다. 우리 사회의 일부 종교적 공상적 행태가 바로 그러한 극명한 예이다. 소외되고 왜곡된 인간본연의 종교적 에너지를 올바르게 표출하고 유도할 수 있는 종교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불교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다.

에 맞는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 가지적 대상인 사찰이 비의(秘儀)의 수행처소로 닫혀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 짝지 않은 사람들이 짝같이 감싸고 있는 중부한 상징적 종교적 의미를 읽을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한다. 누구도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어는 안락의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밖의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현대 문명의 즉물성이다. 현실적 추구의 노골성과 이기적 욕망의 공경이라는 현대산업사회가 원리가 불교에는 치명적 코드로 기능하고 있다.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 이기가 아닌 자비, 욕망이 아닌 절제를 원리로 하고 있는 가르침이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그렇지만 사태는 오히려 거꾸로다. 구원과 초월의 종교적 열망은 인간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무시하고 억압할수록 그에 대한 실존적 정서본능적 반발은 더욱 심해진다. 우리 사회의 일부 종교적 공상적 행태가 바로 그러한 극명한 예이다. 소외되고 왜곡된 인간본연의 종교적 에너지를 올바르게 표출하고 유도할 수 있는 종교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불교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다.

요컨대 밖의 사회적 여건은 불교가 미래의 종교적 열망을 이룰기 위한 다시 없는 호기일 수도 있다. 관건은 오히려 이 일을 감당할 불교 내부의 자기역량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자신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엄격한 자기반성을 필요로 한다. 불교는 그 심정적 동조자들간의 사교로 만족해서 안된다. 대중을 이끌기 위해서는 과감한 체질의 혁신이 필요하다. 대학생 포교가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력

에 맞는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 가지적 대상인 사찰이 비의(秘儀)의 수행처소로 닫혀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 짝지 않은 사람들이 짝같이 감싸고 있는 중부한 상징적 종교적 의미를 읽을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한다. 누구도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어는 안락의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밖의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현대 문명의 즉물성이다. 현실적 추구의 노골성과 이기적 욕망의 공경이라는 현대산업사회가 원리가 불교에는 치명적 코드로 기능하고 있다.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 이기가 아닌 자비, 욕망이 아닌 절제를 원리로 하고 있는 가르침이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그렇지만 사태는 오히려 거꾸로다. 구원과 초월의 종교적 열망은 인간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무시하고 억압할수록 그에 대한 실존적 정서본능적 반발은 더욱 심해진다. 우리 사회의 일부 종교적 공상적 행태가 바로 그러한 극명한 예이다. 소외되고 왜곡된 인간본연의 종교적 에너지를 올바르게 표출하고 유도할 수 있는 종교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불교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다.



◇ 대한불교진흥위원회 주최한 첫 다보수련원연수회에서 전국 37개 신행단체장들이 모여 한국불교의 현실을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정성준 기자>

열린마당

신행단체 나아갈 방향 다보수련원 개원토론회의 지상중계

해외포교사 양성 필요

◆김덕수(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92년 미국 국방성 군종감이 미국 가운데 불교신자가 3.7%에 이르러 이들의 신앙생활을 이끌 지도자가 없다면 한국의 군종법사 파견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군법사도 부족했지만 당시 사단장이 개신교 장로여서 끝내 과감히 못했다. 한국불교를 세계로 알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한국적인 불교 알리기

◆허은근(총남대교수)=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닥칠지도 모른다. 북한이 개방될 때 교단과 신행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국제포교는 외국현지의 포교관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우리 것을 보고 싶어한다. 불교는 우리문화의 중심을 이루는데 체계적인 설명과 포교로 이를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신행단체의 특화된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은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

5계 생활화 '나로부터'

◆김희옥(삼보법회 기획이사)=재가불교운동의 이념과 방향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으로 모아진다고 생각한다. 이 운동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넓게는 나라안으로 확산된다.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청정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실천 지침으로 밝힌 5계생활화를 널리 알리고 실천을 유도한다. 불자라면 최소한 1주일에 하루는 청정5계를 지켜야 한다.

삼의질 높이는 신행을

◆안수복(전 봉은사신도회장)=동체대비라는 가르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여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도움은 불자들이 이전에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이다. 지금도 각 신행단체는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특히 지역사회로 관심을 돌려

신행단체 지도자연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다보수련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신행단체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북한 및 해외동포에 대한 관심, 인터넷 활용과 국제포교를 신행활동의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재가불교운동 상의협력 기쁨을 논의

대한불교진흥위원회가 주최한 불교신행단체지도자연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렸다. 다보수련원 개관기념 첫 행사로 열린 이 연수에는 37개 단체대표 67명이 참가, 조석예불과 108참회의식에 한사라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위한 나의 제안'(이기영·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부처님 당시 교화활동에 대한 관심, 인터넷의 활용과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불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신행단체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불교의 현실을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산발적 단체별로 이뤄져왔던 재가불교운동의 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한불교진흥위원회(김정민·총원은 신행

37개 신행단체 지도자 67명 한자리에

작가) '대승불교의 요체'(권기종·동국대교수)의 강의와 '신행단체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론회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행단체들의 고민을 토로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가자들은 토론에서 신행단체 지도자의 도덕성을 제1의 덕목으로 꼽았으며, 청정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단위단체별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통일과 세계화에 대비한 신행·포

단체지도자연수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권오현 사무국장은 "한국불교의 가장 큰 맹점은 수행에 소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보수련원을 도량으로 삼아 근본불교수행법과 대승불교를 접목시키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행단체지도자 연수 참석자들은 신행단체 지도자들의 협의기구인 '다보회'(회장 김덕수)를 결성, 1회 이상 연수회 개최와 신행사제발달 등의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문>

어려운 이웃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운동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재가불자들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 오로지 자기만을 각 신행단체마다 중요한 운동으로 펼쳐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가치관의 혼돈된 시대에 매우 시급한 사회적 요청이다.

인터넷활용 해외포교

◆오근오(한마음선원청년회장)=국제포교는 타종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에 놓여있다. 인터넷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통신망인 부다피아와 교수불자연합회가 함께 불교에 대한 내용을 풍부히 하고 있다. 각 단체간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불교정보를 다양하게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인터넷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포교는 부다피아가 최선의 방법이다.

유관협의회구성 절실

◆양재국(BBS교통신원불자회장)=최근에 교계에서도 각종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연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슨 무슨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힘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특화된 분야의 모임이 필요하다. 운전기사사자회도 전국 주

현대만평

“우리 세계문화유산 안뜨네”

목어

‘일념삼천(一念三千)’이라는 말이 있다. 범부가 일상생활에서 떠올리는 한 생각 속에는 우주의 온갖 사상(事象)이 원융하게 다 갖춰져 있다는 뜻이다. 좀더 쉽게 풀이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느 곳이라도 통한다는 말이다. 일념삼천은 중국의 천터지의 대사(天台智顓:538~597)가 깨달은 독특한 가르침이다. 일념이란 삼념의 비늘이고 삼천이란 무한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념삼천은 우주를 넘나들 수 있는 마음의 무한성을 일러준다. 이번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영평의 얼굴뒤에는 금보다 소중한 어머니들의 불심이 있었다. 그 모정 불심이야말로 일

금메달과 ‘일념삼천’

영평의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양궁에서 2관왕이 된 김경욱선수의 어머니 길옥분보살은 자신이 한마음선원에서 공부했듯 딸에게도 “주인공에 맡기고 놓아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딸이 지역민전에서 활시위를 당기는 순간 어머니는 자신의 불심을 과녁의 중심에 놓았다. 그때 경기장 아나운서는 ‘퍼펙트 골드’를 외쳤다. 어머니는 감사의 합장을 했다. 레슬링의 심권호선수, 유도 전 기영선수, 여자유도 조민선선수, 여자양궁 단체전의 윤혜영선수의 어머니도 다들 바 없었다. “불안하거든 법당을 찾거나 부처님 또는 관세음보살 명호를 불러 마음을 일념으로 모두어라.” 그 말은 아들·딸에 대한 주문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들도 그러했다. 새벽불

새색별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할 수 있는 일

어려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애쓰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열심히 한다.

협찬 흥국사 주지 최범 TEL.(0346)65-8010

한·중·일 삼국불교 교류대회 기념 불교문화대제전

여의도가 부처님의 큰 향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민족정신에 큰 뿌리로 자리해 온 불교문화! 큰 잔치-불교문화대제전에서 그 숨결을 느껴 보십시오

●행사내용

문화관 (불교 문화의 역사 체험의 장)	생활관 (신앙생활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용의 장)	이벤트 (불교의 역사·문화·행사)
역사관: 한 중 일 삼국의 불교문화의 변천사	생활관: 불교 생활의 실제	●종단의 날 ●이경 불교문화의 날 ●이경 불교문화의 날 ●이경 불교문화의 날
현대미술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교 미술인들의 초대전	농수산물관: 지역별 특산물 전시 판매	●대한 불교문화의 날 ●한국 불교문화의 날 ●한국 불교문화의 날
종단관: 각 종단의 역사 문화 전시	의용 및 건강관: 의용 및 건강관련 전시	●한국 불교문화의 날 ●한국 불교문화의 날 ●한국 불교문화의 날
영상관: 불교영화 40여개작의 3D 영상	세계 스포츠관: 세계 스포츠 관련 전시	●한국 불교문화의 날 ●한국 불교문화의 날 ●한국 불교문화의 날
공연관: 다양한 불교공연 전시	일반인관: 세계 스포츠 관련 전시	●한국 불교문화의 날 ●한국 불교문화의 날 ●한국 불교문화의 날
차량음식점: 세계 각국의 전통음식 전시	저용관: R 부처님 관련 전시	●한국 불교문화의 날 ●한국 불교문화의 날 ●한국 불교문화의 날

●행사명: 한·중·일 삼국불교 교류대회 기념 불교문화대제전

●일시: 1996년 9월 5일(목) ~ 9월 14일(토)

●장소: 여의도광장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불교TV, 경성기획

●생황관 입구제출물 모집 합니다. 관심 있으신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불교문화대제전 추진위원회 Tel:(02)3270-3349/50